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 제16권 제6호, pp. 355-372.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최지만(부산대학교)
김정섭(부산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에게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습습관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은 학생이 하루 수업시간 동안 학습한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한 교과 및 주제를 방과 후에 가정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되돌아 본 후 복습에 목적을 두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Y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 학생 47명(실험집단 23명, 비교집단 24명)이다. 실험집단에는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을 3월부터 5월에 걸쳐 10주간 적용하였고 비교집단에는 초등학교의 일반적인 숙제가 주어졌다. 학습습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를 사전-사후에 실시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은 초등학생의 학습습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주제어: 복습노트, 가정학습, 학습습관, 학업적 자기효능감

Ⅰ. 서 론

요즘 학원에서 예·복습뿐만 아니라 숙제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 하는 공부가 왠지 불안하고 학원에서 보충을 받아야만 안심이 되는 학원의존형 학생 혹은 학원중독 학생이 늘고 있다(김병규, 2003).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종재, 2008)는 4987명 중 약 40%가 혼자 공부하면 못할 것 같다고 응답하여 과외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준다.

이같이 의존적인 학습이 지속되면 단기간에는 학업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

www.kci.go.kr

* 교신저자

나 점점 학생의 독립적인 학습이 결여되고 학부모, 교사 및 다른 학습도구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면서 점차 일정한 도움이 없이는 학업을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게 된다. 더욱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습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학습량이 많아져서 학업 성과를 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생애에 걸쳐 스스로 학습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독자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양명희, 2000). 특히 초등학생 시기에는 단순히 성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재미를 붙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올바른 학습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심효진, 김정섭, 2015).

학습습관은 학습할 때 반복적으로 특정 학습행동을 행함으로써 학습자가 의식하지 않고 자연히 행해지는 학습방법 혹은 행동양식이다(이주영, 2005; 최명묵, 1999). 학습습관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에서 지능 다음으로 학업성취와 관련이 높고, 학습습관 자체만으로도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언력을 가지고 있다(구병두, 1989). 따라서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공부의 의미를 알고, 평가목적이 아니라 숙달목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지루하더라도 참을 수 있고, 학습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학습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향상될 것이며(김유미, 박정희, 2006), 그 결과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증진될 수 있다(하정 외, 2009).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86).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과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투자하며,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 오래 견디려 하고, 학습을 더 오래 지속하여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Bandura & Schunk, 1981; Printrich & De Groot, 1990). 이 때문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를 성공적으로 예측하며, 학업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Betz & Hackett, 1983; Pajares & Miller, 1994).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여러 대상 중에서도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소연희, 2008; 최영신, 김영희, 2006).

학습습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훈련을 통해 충분히 키워질 수 있음이 다양한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임애리, 2005; 정은정, 2005; 조재승, 2003),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학습습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학교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 외의 공간에서도 제시될 수 있다.

가정학습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기 위해 집에서 하도록 내 주는 숙제이다. 이것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킴으로써 학습을 강화하거나 이전에 배운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상황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

www.kci.go.kr

가정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가정학습은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습습관, 책임감, 시간관리, 학생의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Cooper & Valentine, 2001; Gleason, Archer, & Colvin, 2002; Hughes, Ruhl, Schumaker, & Deshler, 2002).

특히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은 학생들에게 인지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하고, 독립적인 연습기회가 많아지게 하여 배운 내용의 숙달에 도움을 준다(Cooper & Nye, 1994). 또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지 못한 개별화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서(Salend, 1994) 학생들의 개인차를 조절해 주며 장기적으로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은 초등학생의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습노트의 활용을 통한 반복적인 가정학습은 학생의 학습습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복습노트의 학습효과로 인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습습관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가?

Ⅱ.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

1. 가정학습

가정학습은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자율학습 형태의 과제이다(이은경, 조윤록, 이영준, 2008). 학령기 아동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적절한 학습습관과 태도를 키우게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숙제'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자율적인 학습 과제라는 의미에서 '가정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가정학습은 정규 수업시간의 학습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개별화된 학습으로 학습내용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내용을 숙달한 학생에게는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간상으로는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목적상 개별화된 자율학습으로 학습 연장의 성격을 수반한 활동이다(권태순, 2016).

www.kci.go.kr

가정학습은 학생들의 지식을 넓히고 능력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책임감을 기르고, 시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신감을 형성시키고, 좋은 학습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다(Needlemen, 2001).

2. 복습노트

복습노트는 학생이 하루 수업시간 동안 학습한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한 교과 및 주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되돌아 본 후, 복습에 목적을 두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다.

복습노트는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오늘 배운 것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교사의 판서를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내용을 선정하고 작성한다. 또한 복습노트는 전형적인 글쓰기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 도표, 개념맵, 그림, 도식화 등 그 형식에 제약이 없다(강주연, 2013).

인지과정 측면에서 노트 정리는 부호화 기능과 기억 장치로 기능한다. 학습은 학습자가 읽기의 과정을 통해 내용을 머릿속으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학습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미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내용을 자신만의 약어나 기호, 간단한 언어로 바꾸어 쓰기, 요약하기,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묶기,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은 관계, 차이점 등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의미 처리 과정이다. 이것이 인지과정 측면에서의 부호화 기능이다. 읽는 과정에서 내용이 순차적으로 입력되지만 순차적인 정보를 다양하게 연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때론 평면적으로 때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복습노트는 인지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부호화할 수 있는 노트 정리 방법이다.

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조직적·체계적인 노트 정리는 어렵다. 부호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은 노트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이며, 이는 사실적 이해(내용 파악)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부호화 기능은 정보의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가 서로 고리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백미숙, 2011). 또한 Howe(1970)는 노트한 정보가 노트하지 않은 정보보다 약 6배 회상률이 높다고 하였고, Peper & Mayer(1978)는 노트하기가 회상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더 깊게 이해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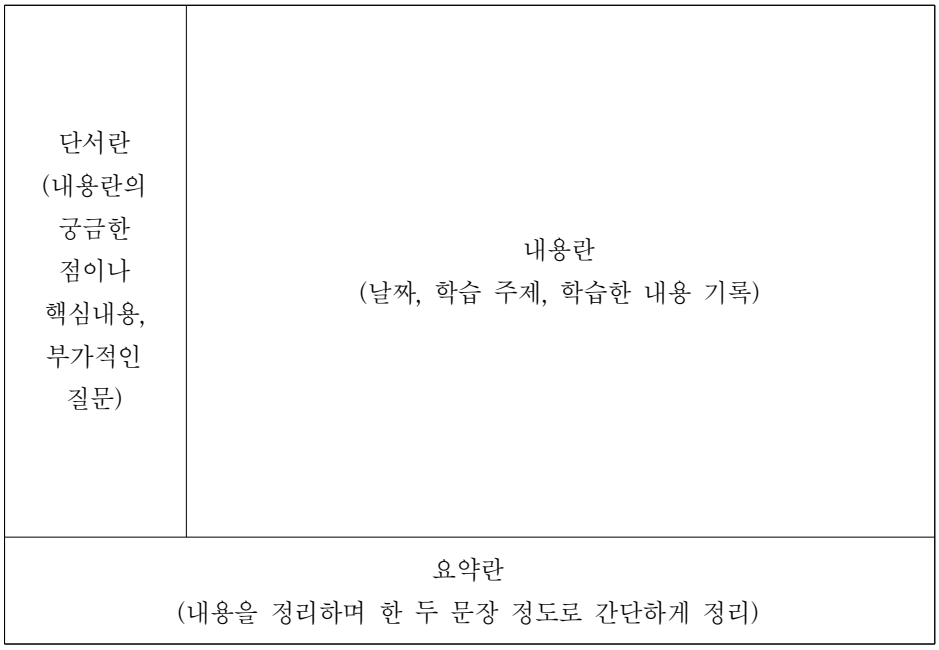
복습노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학습일지가 있다. 학습일지는 객관적인 교과 학습 내용과 그와 관련된 주관적인 학습자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수업을 통해 습득한 교과지

www.kci.go.kr

식을 학습자가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인지적인 요소와 정의적인 요소가 혼합된 형태이다. 복습노트가 학습일지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습노트는 학습일지의 정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인지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성격이 강하다. 둘째, 복습노트는 코넬식 노트의 구조를 변형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인지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구조화시켜 정리하고, 각 단락의 핵심 단어를 추출해 내며, 학습내용을 요약하게 하여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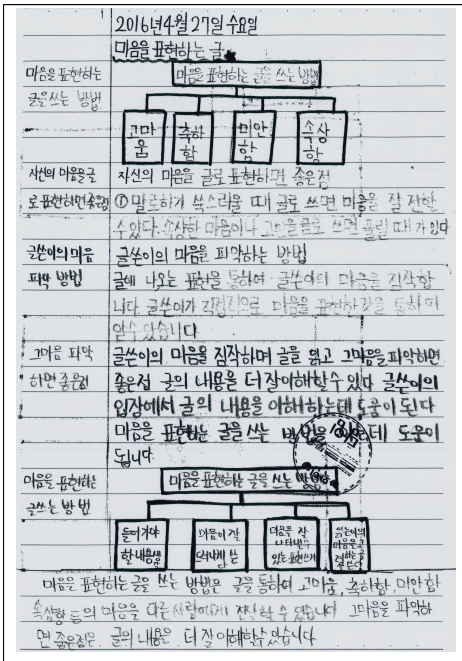
3. 복습노트의 특징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복습노트는 Cornell 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인 Walter Pauk에 의해 고안된 코넬식 노트를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복습노트의 구조는 노트를 크게 3등분하여 [그림 1]과 같이 단서란, 내용란, 요약란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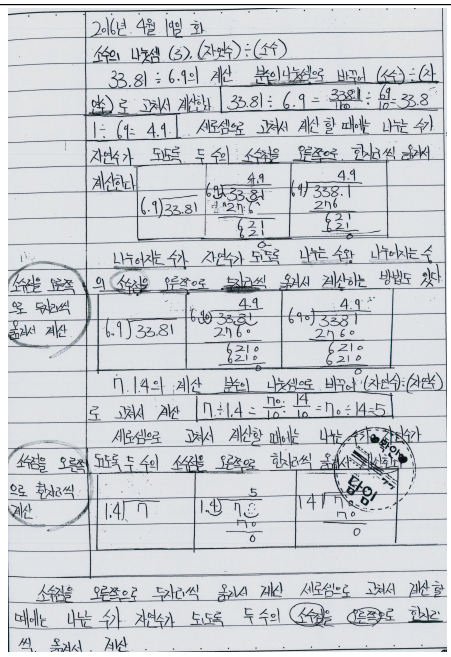


[그림 1] 복습노트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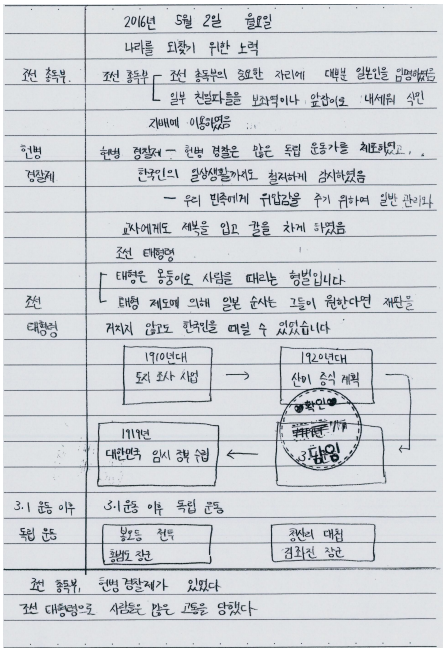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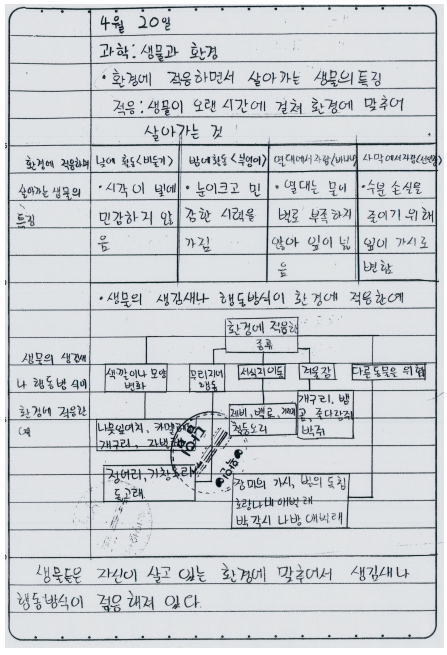
국어과 활용 예



수학과 활용 예



사회과 활용 예



과학과 활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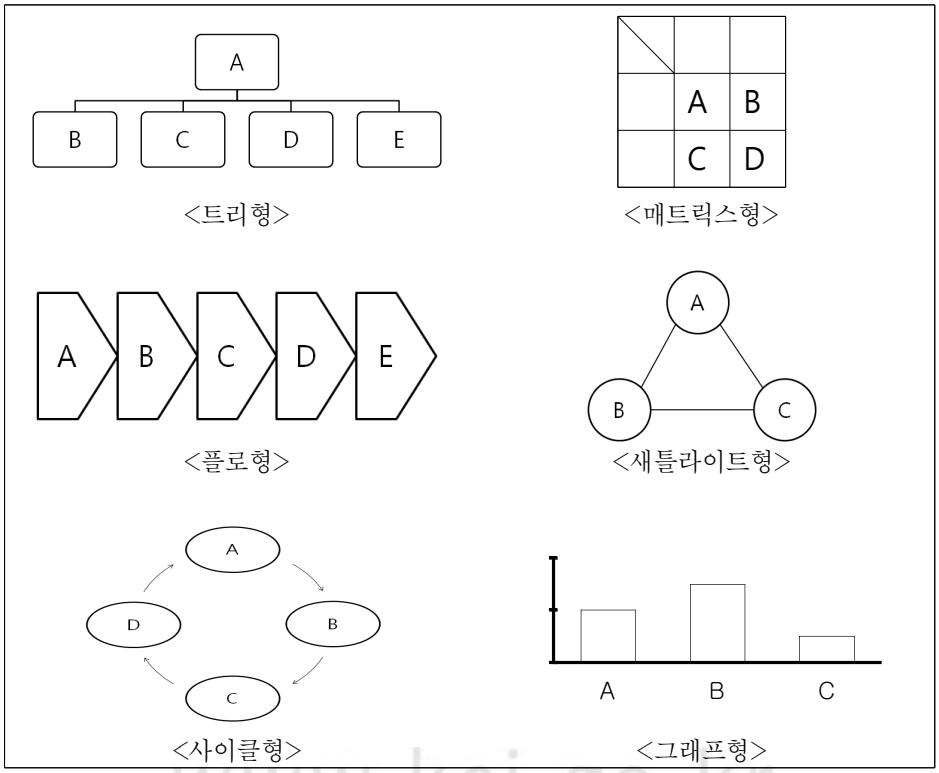
[그림 2] 복습노트의 활용 예

www.kci.go.kr

둘째, 복습노트는 인지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지 도구는 학습자가 생각의 틀에 맞추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여 복습노트의 학습효과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도구이다. 이것은 사고 방식의 패턴을 모아놓은 것으로 학습자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고하여 복습노트에 기록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인지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낱말만으로 아이디어를 표상하는 것 보다 기억을 증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Buzan & Buzan, 1993). 왜냐하면 두뇌는 낱말보다는 이미지를 몇 배나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Kline, 1988), 많은 개념들이 그림, 도형, 도표, 개념맵 등을 통해 보다 잘 표현되고 보다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다(Williams, 1986).

복습노트에 많이 사용되는 인지 도구의 유형은 [그림 3]와 같이 요소를 수준별로 분류하고 계층으로 나타내는 트리(Tree)형 인지 도구, 요소를 다른 두 축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매트릭스(Matrix)형 인지 도구, 요소의 시간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Flow)형 인지 도구, 요소의 상호의존관계를 나타내는 새틀라이트(Satelite)형 인지 도구, 요소의 순환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사이클(Cycle)형 인지 도구, 요소의 수량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Graph)형 인지 도구 등이 있다.



www.kci.go.kr

[그림 3] 인지 도구의 유형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Y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 학생 47명(남 22명, 여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두 학급 중 1개 학급은 실험집단으로, 다른 1개 학급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 학생 23명(남 10명, 여 13명)에게는 실험 기간 동안 매일 복습노트를 작성하는 과제가 부여되었고, 통제집단 학생 24명(남 12명, 여 12명)에게는 초등학교의 일반적인 과제가 부여되었다.

Y초등학교의 학생은 대부분이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다. 가정에서 학습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과 후에는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으며 저녁시간이 되어서야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10주에 걸쳐 매일 진행되었고, 부여된 과제는 복습노트에 하루에 1페이지 분량의 학습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복습노트는 방과 후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그날 수업시간에 배운 학습내용 중에서 무엇을 학습할지 스스로 선택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학습 또는 하고 싶은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여 복습노트를 제출하면 교사가 꼼꼼히 확인, 검토한 후 피드백한다. 복습노트 활용 초기에는 복습노트에 대한 활용법을 지도하여 복습노트를 활용하는데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복습노트를 활용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처음에는 문자 위주로 기록하게 하다가 점차 도표나 그림, 개념맵 등의 인지 도구를 사용하여 노트정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표 1> 연구 절차

	내용	시기
1	계획 수립 및 사전검사	2016. 3. 7. - 2013. 3. 8.
2	가정학습 제시, 복습노트 구조 및 작성방법 안내	2016. 3. 9.
3	인지도구(도표, 그림, 개념맵 등) 활용 방법 안내	2016. 4. 1.
4	복습노트 검사 및 피드백	2016. 3. 9. - 2016. 5.13.
5	사후검사 및 정리하기	2016. 5.16. - 2016. 5.17.

www.kci.go.kr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실험-통제 집단 사전-사후검사 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이 초등학생들의 학습습관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처지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처치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이며, 종속변인은 사전-사후 검사의 학습습관 점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이다.

<표 2> 연구 설계

O1	X	O2
O3		O4

O1, O3 : 사전검사 (학습습관 검사,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X : 실험처치(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
O2, O4 : 사후검사 (학습습관 검사,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4. 검사 도구

가. 학습습관 검사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학습습관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된 학습습관 검사는 박경숙과 이혜선(1976)이 개발한 것을 이재분, 현주, 김미숙, 류덕엽(2001)이 초·중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 수준 분석 연구(Ⅱ)에서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습습관 검사는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역 당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도구는 리커트 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학습습관 검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5이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주의집중행동 .91, 학습기술적용행동 .91, 자율학습행동 .82이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것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는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자신감(8문항)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검사도구는 리커트 식 5점 척도를 사

www.kci.go.kr

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5이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과제난이도 선호 .91, 자기조절 효능감 .93, 자신감 .87이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처치 전후에 실시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로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대표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문항들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수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도는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에 미치는 효과 검증

사전-사후 학습습관 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비교한 <표 3>의 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은 학습습관의 3개 하위요인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에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전체 점수에서도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은 학습습관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가 하위요인과 전체 점수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 사전-사후 학습습관 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변인	실험집단(*n*=23)				비교집단(*n*=24)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	*SD*	*M*	*SD*	*M*	*SD*	*M*	*SD*
주의집중행동	42.57	6.178	44.26	4.423	38.08	8.048	38.83	6.989
학습기술적용행동	37.57	7.931	41.35	6.906	30.46	7.746	34.42	9.464
자율학습행동	34.52	6.881	38.22	6.452	35.21	9.017	33.04	8.143
학습습관 전체	114.65	19.518	123.83	15.808	103.75	22.476	106.29	23.759

www.kci.go.kr

학습습관 점수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공변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학습습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703, p<.05). 학습습관 하위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의집중행동(F=4.873, p<.05), 학습기술적용행동(F=8.800, p<.01), 자율학습행동(F=2.043)으로 주의집중행동과 학습기술적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학습습관 검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

종속변인	변량원	*df*	*MS*	*F*
주의집중행동	공변인	1	783.454	44.751***
	집단	1	85.312	4.873*
	오차	44		
학습기술적용행동	공변인	1	1459.844	38.948***
	집단	1	329.853	8.800**
	오차	44		
자율학습행동	공변인	1	1257.296	46.741***
	집단	1	54.945	2.043
	오차	44		
학습습관 전체	공변인	1	10797.831	61.843***
	집단	1	995.759	5.703*
	오차	44	174.601	

* $p < .05$, ** $p < .01$, *** p<.001

2.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검증

사전-사후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비교한 <표 5>의 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에 비해 약간 상승했지만 비교집단은 사후점수가 사전점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평균점수는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그 외 다른 하위변인은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교집단의 경우 3개의 하위영역에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www.kci.go.kr

<표 5> 사전-사후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변인	실험집단(n=23)				비교집단(n=24)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	*SD*	*M*	*SD*	*M*	*SD*	*M*	*SD*
과제난이도선호	35.35	10.285	36.70	11.047	31.17	8.943	31.75	8.619
자기조절효능감	35.87	34.630	40.22	7.568	34.63	8.627	34.54	10.624
자신감	34.04	7.252	34.09	7.366	30.33	8.128	30.67	7.087
학업적자기효능감	105.26	23.862	111.00	22.867	96.13	21.212	96.96	21.788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점수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공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966).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F=6.595, 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6>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

종속변인	변량원	*df*	*MS*	*F*
과제난이도선호	공변인	1	3258.105	126.276***
	집단	1	17.442	.676
	오차	44		
자기조절효능감	공변인	1	2101.786	52.722***
	집단	1	262.932	6.595*
	오차	44		
자신감	공변인	1	1135.927	41.196***
	집단	1	11.146	.404
	오차	44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공변인	1	15109.466	90.903***
	집단	1	493.065	2.966
	오차	44		

* $p < .05$, ** $p < .01$, *** $p < .001$

Ⅴ.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복습노트를 정리하는 가정학습을 꾸준히 제시하여 그것이 학생들의 학습습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첫째,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은 초등학생의 학습습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을 하나의 학습기술로 볼 때 학습기술 훈련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권응환(200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학습능력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그것이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긍정적인 결과 보고하였던 King & Jennifer(1993)와 Burley(1993)의 연구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기술 훈련을 실시한 후에 그들의 학습습관 변화를 측정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한 Fralick(1990)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복습노트와 유사한 학습일지 쓰기 활동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에 미치는 효과가 없었다는 이효진(2015)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효진(2015)은 하위요인 중 주의집중행동을 제외하고 다른 하위요인과 학습습관 전체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학습일지 쓰기 활동은 글쓰기 및 노트정리가 익숙치 않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효과를 보기에는 쉽지 않은 활동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은 학습습관의 하위요인 중 주의집중행동과 학습기술적용행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습관의 하위요인 중 자율학습행동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여전히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한 학습에 익숙해 있고 가정에서도 부모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학습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가정학습으로 주어진 복습노트가 학생들이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학습으로 생각되기 보다는 교사로 부터 부여된 숙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이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면 자율학습행동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신감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과에 대한 복습노트와 유사한 학습일지가 초등학생의 정의적 특성 변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현위경(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학습일지를 활용한 가정학습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강주연(2013)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연구대상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이 대부분인 학교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저소득가정 초등학생들의 학업적 특성인 실패경험의 누적으로 인해 오는 학습에 대한 흥미 및 자신감의 하락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심효진, 김정섭,

www.kci.go.kr

2015).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은 학생들의 학습습관을 형성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학습습관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상당한 변인이 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을 꾸준히 수행하게 된다면 상당한 학업성취를 누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확장시켜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등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하정 외, 2009).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들에게 놀이기반 학습전략프로그램을 적용하였는데, 그것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지만 그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만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한 심효진과 김정섭(2015)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이 이런 일련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복습노트는 그 특성상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대부분의 숙제를 포괄할 수 있다. 오히려 복습노트의 작성은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율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복습노트를 더욱 잘 활용하게 하는 내적 동기 부여가 되어 꾸준히 가정학습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동일한 검사지로 측정함으로써 반복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이 학습습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았다. 물론 학습습관이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하나의 변인이 되지만 후속 연구에서 복습노트를 활용한 가정학습이 학업성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학교 현장에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복습노트의 활용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되므로 학교급을 확대하여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복습노트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설계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Beidel, Turner & Taylor-Ferreira(1999)는 학습기술의 향상이 있었으나 이것이 학업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훈련기간을 지적하였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주연(2013). 학습일지 쓰기활동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병두(1989).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Meta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응환(2004). 학습기술 훈련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태순(2016). 학교와 학원 숙제 관련 학생 특성과 숙제 모형 비교.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병규(2003). 중학생들의 과외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미, 박정희(2006). 학습기술 향상 집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습관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학연구, 13**(1), 1-23.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박경숙, 이혜선(1976).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 태도, 학습습관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백미숙(2011). 스텐포드 대학의 '연구 중심 글쓰기'교육: PWR 글쓰기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대학작문학회 제 2 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대학작문학회, 35-58.

소연희(2008). 학교급별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로모형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2), 49-64.

심효진, 김정섭(2015). 놀이기반 학습전략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초등학생의 학습습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29**(3), 409-425.

양명희(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경, 조윤록, 이영준(2008). 게임형태의 가정학습과제가 초등학생의 사회과 과제흥미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4**(1), 31-49.

이재분, 현주, 김미숙, 류덕엽(2001). **초·중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이종재(2008).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100 일의 성과와 과제. 교육정책포럼.

이주영(2005). 중학생의 학습동기·학습습관·학업성취도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효진(2015). 학습일지 쓰기 활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www.kci.go.kr

임애리(2005). 자기조절 학습전략 훈련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정(2005). 자기조절학습훈련이 학습부진아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학연구, 12**(1), 153-174.

조재승(2003).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 습관에 미치는 영향.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명묵(1999). RET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학습습관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신, 김영희(2006). 관련연구: 가족의 정서적 환경,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0**(2), 105-124.

하정, 김양희, 황도연, 정혜윤, 김은덕(2009).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47-65.

현위경(2011). 수학일지쓰기를 통한 학업성취도와 정의적 특성의 변화 및 수학일지 쓰기 양상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Hall, Inc.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

Betz, N. E., & Hackett, G. (1983). The relationship of mathematics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the selection of science-based college maj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3), 329-345.

Burley, H. E. (1993). *A meta-analysis of college developmental studies programs.* Unpublished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Buzan, T., & Buzan, B. (1993). *The Mind Map Book How to Use Radiant Thinking to Maximise Your Brain's Untapped Potential*. New York: Plume.

Cooper, H., & Nye, B. (1994). Homework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The Implications of Research for Policy and Practice.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7*(8), 470-479.

Cooper, H., & Valentine, J. C. (2001). Using research to answer practical questions about homework. *Educational Psychologist, 36*(3), 143-153.

Beidel, D. C., Turner, S. M., & Taylor-Ferreira, J. C. (1999). Teaching study skills and test-taking strategies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Testbusters Program. *Behavior Modification, 23*(4), 630-646.

Fralick, K. G. (1990). *Study skills: a junior high/middle school integrated*

www.kci.go.kr

curriculum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Gleason, M. M., Archer, A. L., & Colvin, G. (2002). Interventions for improving study skills. *Interventions for academic and behavior problems II: Preventive and remedial approaches*, 651-680.

Howe, M. J. (1970). Note-taking strategy, review, and long-term retention of verbal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3*(6), 285-285.

Hughes, C. A., Ruhl, K. L., Schumaker, J. B., & Deshler, D. D. (2002). Effects of instruction in an assignment completion strategy on the homework performance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general education classes.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 Practice, 17*(1), 1-18.

King, E., & Jennifer, C. (1993). *The effect of study skills instruction on the study strategies and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Kline, P. (1988). *The everyday genius: Restoring children's natural joy of learning, and yours too*. Great Ocean Publishers.

Needleman, R. (2001). Homework: The Rules of the Game. Retrieved March 25, 2007, from http://www.drspock.com

Pajares, F., & Miller, M. D. (1994). Role of self-efficacy and self-concept beliefs i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 path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2), 193.

Peper, R. J., & Mayer, R. E. (1978). Note taking as a generative activ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4), 514.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

Salend, S. J. (1994). *Effective mainstreaming: Creating inclusive classrooms*. Macmillan College.

Williams, L. V. (1986). *Teaching for the two-sided mind*. Simon and Schuster.

논문 접수: 2016년 5월 23일
논문 심사: 2016년 6월 21일
게재 승인: 2016년 6월 27일

www.kci.go.kr

<ABSTRACT>

The Effects of Review with note taking activity at home on Study Habi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oi, JiMan(Pusan National University)
Kim, JungSub(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Review with note taking activity at home on enhancing study habit and academic 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examine the research questions, 47 elementary students were adopted as subjects: 23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4 students were in the comparison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the Review with note taking activity at home and the comparison group was given general homework for 10 weeks. The result showed that the Review with note taking activity at hom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tudy habit and self regulatory 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owever, it did not have any effects on academic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 Key words: Review with note taking at home, study habit, academic self-efficacy

www.kci.go.kr